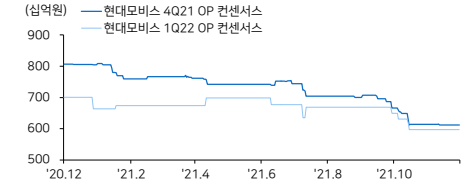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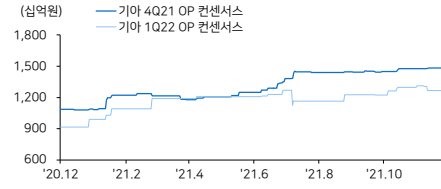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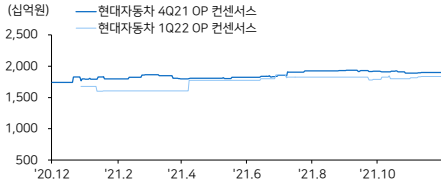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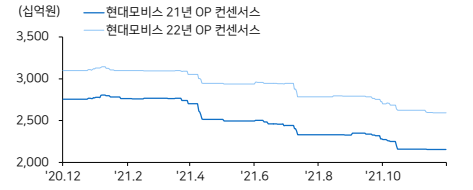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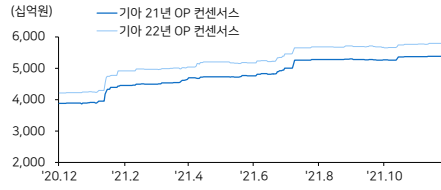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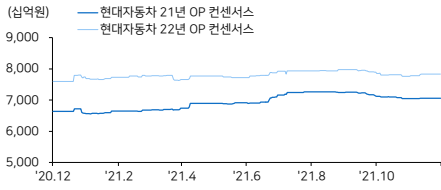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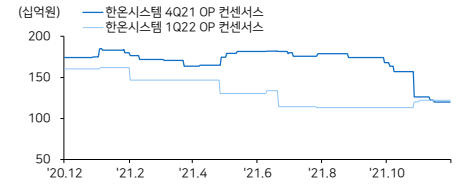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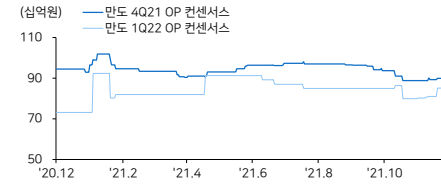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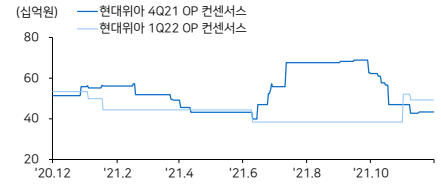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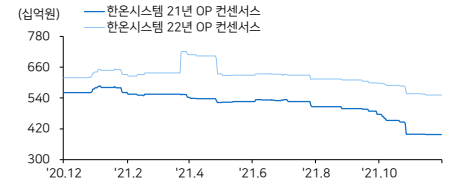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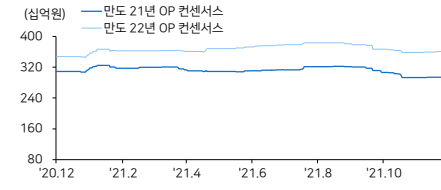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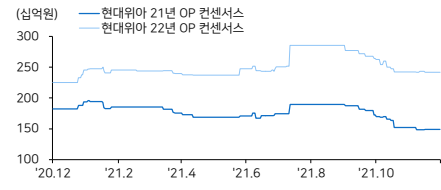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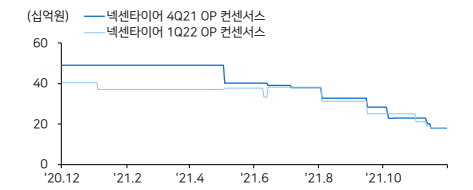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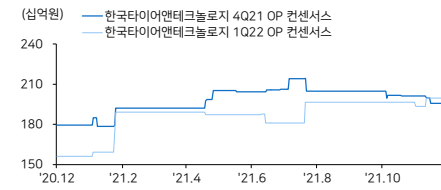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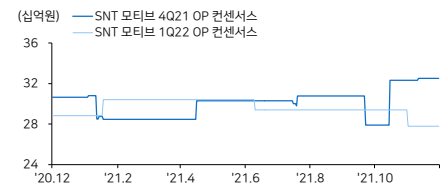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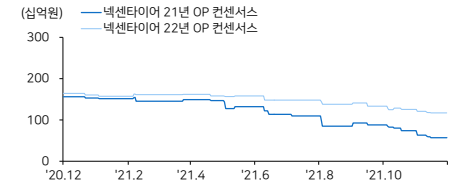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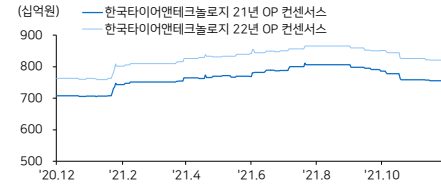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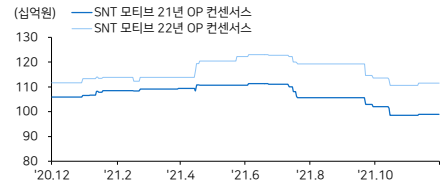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도 젊은 임원 대거 발탁 전망... '실리콘밸리식 인사' 확산 (조선비즈)

현대차그룹에서 정익선 시대가 개막하는 과정에서 고교 역할을 했던 외국인 사장들이 퇴임하고, 전기차·자율주행차·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대거 요직에 올려 과감한 변화를 선택할 전망이다. <https://bit.ly/3E9slv2>

현대차 합작법인 모셔널, 자율주행 음식 배달서비스 선보인다 (조선비즈)

모셔널은 우버 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내년 초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 지정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자율주행 전기차 아이오닉5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 <https://bit.ly/3lVMw31>

U.S. new car sales to rise in 2022 on pent-up demand (Reuters)

Edmunds는 공급망 문제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감소에 따라 억눌린 수요로 인해 '22년 신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중고차 시장도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HIS마켓은 중국 본토 신차 판매 역시 '24년까지 지속 상승을 전망. <https://reut.rs/3E67e7C>

Rivian will build its next EV manufacturing plant in Georgia (Teslarati)

리비아는 '21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 차기 미국 공장의 위치가 '조지아'임을 밝힘. 애플렉타 근처에 연간 50만대 Capa를 목표로 두 번째 공장을 지을 계획. 생산은 '24년 시작될 예정. 리비아는 R1T 모델 생산 및 납품을 최근 시작했다. <https://bit.ly/3yyn4V>

기아, 인도 전락 모델 '카렌스' 공개... '대가족 특성 반영해 실용성 강조' (조선비즈)

기아가 인도 전락 MPV 모델 '카렌스'를 출시, 인도 패밀리 시장 공략에 나선. 개발 초기부터 인도의 가족단위 고객 특성에 맞춰 긴 휠베이스 기반의 7인승 차량으로 설계, 대가족 중심의 인도 고객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설명. <https://bit.ly/3sgX9aH>

*'이거 재미있네'...현대차, 소형 모빌리티플랫폼 '모베드' 공개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16일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MobED)'를 공개함. 바퀴와 바디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모베드의 특성상 혼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배운·안내 서비스, 촬영장비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https://bit.ly/3lWRp71>

Kia EV6 receives EPA rating: Up to 310 miles of range on a single charge (electrek)

기아 EV6 후륜구동(배터리팩 77.4kwh) 버전은 1회 충전시 310마일의 EPA 주행거리를 인증.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는 303마일. EV6는 '22년 초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판매될 예정, 가격은 아직 미공개. <https://bit.ly/3mx3D1J>

Arrival unveils its roomy rideshare Car prototype designed with Uber ahead of testing next year (electrek)

자율주행 스타트업 Arrival은 Uber의 협력으로 설계한 Arriral Car EV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함. Arrival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동시에 Microsoft와 함께 차량용 EV용 클라우드 기반 원격 측정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개발 중. <https://bit.ly/3y3zDt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아닌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